

## 위대한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

### 나의 스승들

위대한 한 인물이 탄생하는 데는 반드시 위대한 만남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은 열심히 먹이지만 위대한 정신적 양식인 '살아있는 인격'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는 인색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정말 좋은 스승, 정말 좋은 친구,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나에게 너무도 좋은 만남을 주셨다는 것이다.

### 김준곤 목사님과 CCC 간사님들

처음 김준곤 목사님을 만난 것은 설교를 통해서였지만 가까이서 뵈는 것은 CCC 호남향우회를 통해서였다. 이태원에 있는 목사님의 집에서 가든파티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손수 끓인 육개장으로 대접을 하셨다. 멀리서 존경하던 분을 그렇게 가까이서 뵈니 따뜻한 인간미까지 느껴지는 것이 더욱 존경스러웠다.

목사님의 위대한 점은 창조적 비전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진취적 아이디어, 비전을 향해 돌진하는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상함이다. 그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연상케 하며, 그분의 민족을 향한 애정은 우리 선인들의 모습에 못지않다.

그 외에도 목사님의 존경스러운 점을 나열하려면 끝이 없다. 물론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었다.

한번은 기숙사에서 나와 한 학기 동안을 정동 CCC 회관 8 층에서 지낸 적이 있다. 학교에 갔다 와 보니 내 방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다. 겨울철이라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켜놓은 채 등교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여 전기장판과 이불만 탄 정도로 그쳤지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다음 주일 날이었다. 목사님께 문책을 받을 줄 알고 마음을 즐기고 있었는데 한 간사님이 이불 한 채를 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목사님께서 그 화재 소식을 들으시고 나를 염려해서 이불을 보내셨다는 것이었다. 마치 따끈한 고구마를 머리에 얹은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이 되었다. 이후 목사님과는 더욱 가깝게 지냈고 만날 때마다 친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다.

순장 교육을 받을 무렵에는 CCC 에서는 드물게 목사님께서 직접 순장을 지도하신 탓에 우리 몇몇 형제들은 김 목사님의 직속 순원이 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그 당시 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해서 후배들에게 전달했는데 표정은 물론 목소리까지 목사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만큼 그분의 인격과 메시지는 나의 뱃속 깊이 스며들었고 나의 20 대를 황금의 시대로 변모시켰다.

물론 김준곤 목사님 외에 강순영 간사님, 조기철 간사님, 김안신 간사님, 정종원 간사님, 이상규 간사님, 박영을 간사님, 김종식 간사님 등 CCC 시절 내게 영향을 준분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 **빌 브라이트 박사님**

두 번째로 내게 영향을 주었던 분은 CCC 국제 총재이자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였다. 95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있었던 S.M.2,000 행사가 끝나고 귀빈석에 있던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났는데, 15년 전에 처음 만났던 때를 회고하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그분을 직접 만난 것은 두 번뿐이지만, 주로 글을 통해 그분의 신앙 철학과 사상과 비전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세계를 품은 비전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고 주님 앞에 철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의 태도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택시를 타도 반드시 전도를 한다는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 때였다. 당시 의대에 다니면서 CCC 편지 편집장을 하고 있던 나는 그와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는 미국인치고는 키가 작았다. 그러나 그에게서 확신과 비전과 겸손을 동시에 느끼면서 '영적 거인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을 하였고 '나도 저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 **한경직 목사님**

세 번째로 내게 영향을 준분은 한경직 목사님이다. 5년 동안 CCC 채플에 나가다 본과 3학년 시절부터 지역 교회를 섬기고 싶어 영락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뵈게 된 한 목사님의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 목자다운 성품, 깨끗하고 고결한 신앙 인격, 겸손과 온유, 그리고 폐부를 찢러오는 잔잔한 메시지에 깊은 은혜를 받았다. 이 시절에는 영락교회 2부 성가대인 호산나 성가대에 오디션을 받고 들어가 열심히 활동하기도 했다.

### **박윤선 목사님과 합신의 교수님들**

네 번째로 내게 영향을 주신 분은 박윤선 목사님이다. 의과대학 교수 시절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픈 열망 때문에 합동신학원에 입학했는데 그때 나에게 가장 강렬한 영향을 남긴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윤선 목사님이시다.

학문과 경건을 경비하신 분으로 성경 66권의 주석을 쓰실 정도로 왕성한 학구열과 제자 목사들을 향하여 포효하시던 핵심을 때리는 추상같은 메시지가 기억에 남는다. 보통 때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으신 분인데 강단에만 서면 열변을 토하신다. 특히 어느 신학대학 졸업식에서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강단에서 공적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서 참석자 모두가 전율을 느낄 만큼 오싹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순간적인 감동은 없었지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지식들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강의였다. 당시는 어안이 병병했던 강의 내용이 시간이 갈수록 '과연 진리로다' 하고 무릎을 치게 했고, 그 명쾌한 논리에 감탄한 적이 많았다. 지금도 나는 그분의 설교집을 보며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다.

그 외에도 합신에서 영국 신사로 통하는 조직 신학의 대가 신복윤 교수님, 선교의 열정을 일깨워주신 김명혁 교수님, 신약학의 대가 박형용 교수님, 히브리어와 기초 신학을 가르치던 신세대 파워 김영철

교수님, 헬라어의 박광만 교수님, 성서를 꿰뚫는 성경 신학의 대가 김성수 교수님 등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설교학과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하시던 박영선 목사님은 나의 지적 회복에 큰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다.

### 프란시스 쉐퍼 박사님과 라브리의 간사님들

프란시스 쉐퍼 박사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내가 그분의 저서를 통해 받은 도전은 엄청나다. 특히 라브리 다음 시대를 이끌었던 라브리 2 세대의 영적 거인들로부터 집중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나로 하여금 총체적 진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갖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라브리 세미나를 인도했던 엘리스 포터 목사, 쉐퍼 박사의 수제자이자 사위인 레놀드 맥콜리 박사, 국제 라브리의 리트케르크 빔 목사, 코비넌트신학교 교수인 제람 바즈 교수, 그와 같은 학교의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출신인 리차드 윈터 박사, 미국 라브리의 대표와 한국 라브리의 성인경 목사님 부부 등이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쉐퍼 박사 외에도 에디스 쉐퍼 여사, 수잔 맥콜리, 인도의 비샤 망갈와디 목사 등의 영향도 받았다.

### 하나님의 사람들

김진홍 목사님은 역량과 유명세에 비해 너무도 겸손하시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신 분으로, 사랑의 봉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나와 함께 동역을 했었다. 김 목사님은 말씀을 현실에 접합시켜 생동감을 불어넣는 측면에서 전문가이시다.

곽선희 목사님은 우리 부부의 주례를 하신 분으로 나는 소망 교회 청년부 시절, 그분의 깊이 있는 메시지에 매료되었다. 그분의 설교는 그 자체가 웅만한 신학 강의보다 더 깊은 성경적 지식과 체험적 신앙을 체득케 한다. 그래서 소망 교회 청년회 시절에는 곽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강해에 매료되어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항상 맨 앞좌석에 앉아 열심히 은혜 받던 때가 있었다.

육한흠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는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분들의 훌륭한 인격과 아름답고 창조적인 사역에 큰 매력을 느꼈다.

조용기 목사님은 대학 시절부터 경쟁의식을 가졌던 분인데 그분의 메시지는 활화산 같았다. '저 분이 전 세계를 다 복음화하면 나는 할 일이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큰 도전으로 나에게 작용했다.

아처 토레이 신부님은 대학 시절부터 예수원을 찾아다니며 큰 은혜를 받았던 분이고, 코리텐 붐 여사는 비록 저서를 통해 알았지만 전도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해 준 장본인이었다. 평신도로서는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님, 국제 기아 대책 기구의 정정섭 장로님, 서울대 병원의 박재형 교수님, 서안 복음병원의 이건오 원장님, 재학 시절 서울대 병원장을 역임하신 서울 중앙병원의 홍창의 박사님이 좋은 스승으로 기억되는 분들이다.

최근에는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님과 연변 과학 기술 대학의 원동연 박사님이 신선한 도전을 주신 분들이다. 책으로 영향을 받았던 분들은 종교 개혁자 존 칼빈, 찰스 스펀전, 로이드 존스, 존 스토틀, 조지 윌러 목사와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윌리엄 케리 선교사, 폴 투르니에 박사, 로렌 커닝햄 목사,

존 하가이 박사, 캐더린 마샬 여사 등이며 치유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는 데이빗 시멘즈 목사, 래리 크랩 박사 등의 영향을 받았다.

오직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위해 동원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적 네트워크에 감격할 뿐이다.

### 무명의 동역자들

비록 유명한 분들은 아니지만 대학 시절 꿈과 비전을 불태우며 캠퍼스를 누볐던 형제자매들, 살롱 교회 개척 시절 은혜의 동역자들, 교수 시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한림대학의 제자들, 그리고 세계 각국을 누볐던 사랑의 봉사단 간사들과 단원들, 그동안 방문했던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랑의 클리닉의 직원들, 전인 치유 학교의 학생들, 사랑의 기도 편지 독자들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사랑에 빛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고, 내가 오랫동안 성감을 받는 자로 있었기에 이제 남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자녀를 위한 십자가

#### 어머니

오랜만에 고향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묵은 집을 새로이 단장해 놓으시고 밭에 딸린 정원도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셨다. 담쟁이넝쿨이 타고 오를 수 있도록 버팀목을 정원에서 지붕까지 받쳐 놓으셨다. 어머니의 예술가적 기질과 관리 능력이 점점 집과 주변 환경을 운택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부를수록 그 포근함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른다. 어머니는 본래 사범학교 진학을 하려다 할머니의 반대로 진학을 하지 못하고 평범한 주부로 아쉬운 일생을 사신 분이다. 아버지와는 학력과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셨다. 난무하는 폭언 등 뿌리 깊은 가정불화를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극복하셨지만 가슴 속에 맺힌 것이 무척 많으신 분이다.

다른 어머니도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더욱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철저한 희생으로 일관하셨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녀를 위해 전부를 거신 어머니. 자녀만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야 하고 그것도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역경 속에서도 오늘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실감난다.

고등학교 3 학년 때의 일이다. 그때는 방과 후에 학교 도서실에서 밤 11 시 30 분까지 공부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점심뿐 아니라 저녁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왔는데 나만은 예외였다. 저녁 무렵이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10 리 길을 걸어서, 어머니가 손수 저녁 식사(찬함에 따끈한 밥과 서너 가지의 반찬, 국물을 담아서)를 가지고 찾아오셨던 것이다.

그 정성과 사랑에 나는 그저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어머니의 고통과 한숨과 슬픔에 나를 동일시하는 내면세계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 전용 병원인 서울 지구병원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갑자기 고향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더니 작은 어머니를 바꾸셨다. 어머니가 갑자기 경기를 하시며 쓰러지셔서 말씀을 잘 못하신다는 것이었다. 순간 생의 버팀목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고생만 하시고 희생적인 삶을 사셨던 어머니가! 안돼... 절대로 안돼! 오 하나님!'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어머니가 계신 남원으로 차를 몰았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며 최고 시속으로 차를 몰아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누워계셨고 일단 뇌졸중은 아닌 것 같았다. 문제는 간질 환자처럼 5분에 한 번 정도 경기를 하시는 것이었다. 다른 생각을 할여지 없이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호남 고속도로를 정신없이 달려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오는 4 시간 동안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붙잡고 한손으로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다.

"오, 하나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한 번 경기(간질 발작)를 하고 나면 그동안 막혔던 숨을 한꺼번에 몰아쉬었다. 그러다가 조금 안정이 될 만 하면 다시 경기를 시작하셨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어느덧 차는 서울 지구병원에 도착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고 밤중에도 집중적 간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신경과장의 진단으로는 '후천성 지역성 간질'이 유력했는데 그 병은 난치병 중의 하나로 테그레톨이라는 약을 3년 이상 써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도 완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예후는 나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슬프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치료 과정에서 두 번의 입원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머니는 거의 완치되어 귀향하셨고, 약도 석 달 정도만 쓰고 완전히 끊을 수 있었다. 의사인 나로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회복이었고 지금도 재발의 징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완치된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주님과 나만의 비밀인데, 그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주님께 드렸던 처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사랑은 비밀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안다. 크리스천에게는 모든 것이 사랑의 사건이요 우연은 없다.

## 영원한 낭만주의자

### 아버지

아버지는 한마디로 낭만주의자이시다. 형이 강진 바닷가에 50만 원 짜리 집을 사서 개조한 다음, 가족과 함께 산 적이 있다. 한번은 그곳을 다녀오시더니 "얘야, 내가 대충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 주변의 밭을 사서 황씨 일가들을 모아 황촌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기질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직업의식이 비교적 투철하신 분으로 풍류에도 능하셨다. 그래서 북과 장구를 즐기셨고 시간만 나면 시조를 읊으셨다. 나는 자라면서부터 줄곧 어머니 편이었는데 그것은 어머니는 항상 약자였고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역시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신 분으로, 나는 최근야 그 부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어머니의 불행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는 것으로만 여겼던 나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분당에서 같이 지내는 동안 약간의 파라노이드와 심한 감정의 기복으로 불안정했던 부분들은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고 계신다.

요즈음 나는 어릴 적에는 두려움과 상처와 분노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깊은 부정(父情)'을 느끼며 살아간다.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 30 년이 지나고 40 년이 지나도 주 안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다.

###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라!**

#### **은혜의 순간들**

CCC 시절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10 단계 성서 교재>를 공부하면서부터이다. 물론 그 전에 LTC 와 전도 훈련에서도 성령의 큰 역사하심을 느꼈지만 <10 단계성서 교재>를 공부하면서부터 확고하게 말씀에 뿌리박은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나 체계적인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김준곤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개론>이었다. 그것을 혼자 공부하면서 말씀의 맛이 그토록 달고 오묘한 것인지를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순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다.

용인 뽀얏수양관에서 열린 성서 대학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다. 말씀의 맛에 취한 형제들이 밤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천막을 짓고'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이처럼 무섭게 말씀을 흡수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던 시기를 지나, 지금은 설교나 강의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다.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통해 거쳐 가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을 남에게 증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스스로 감동하지 못한 설교에 누가 감동을 받겠는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대상과 시기에 따라 역사하는 바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감동이 다르다.

'고인 물은 썩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산다. 요즘 성도들은 받은 은혜는 많고 줄 수 있는 통로는 없기 때문에 모두들 영적 비만, 과제중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 때가 많다.

나는 '기도' 하면 주눅이 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기질적으로 오래 기도하는 타입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내향적이고 현실지향적인 사람은 오래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깊은 내면의 성찰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나의 경우 대부분의 기도 생활은 공동체적 기도일 때가 많고, 개인 기도는 주로 금식을 할 때가 많았다.

내가 처음 금식 기도를 한 것은 대학 1 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였다. 당시 수련회 도중 군대 귀신이 들렸던 한 형제가 있어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 어두움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집에서 쉬는 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고 비실비실했다.

그러던 중 당시 CCC 회장이었던 박하정 형제가 서울대 복음화를 위한 금식 기도를 제안해왔다. 건강의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결단을 하고 서울 정동회관 8 층에서 3 일간 함께 금식 기도를 했다. 세 명의 형제가 3 일 동안 금식하며 빌립보서를 공부했는데 내면에서 큰 기쁨과 확신이 솟구쳐 올랐다.

이후 영적 싸움에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다. 거의 매주 빠지지 않았던 철야 기도는 물론이고 문제만 생기면 금식 기도를 했다.

기도의 본질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나를 축복하게 한다는 의미로 들리기가 쉽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수반한다.

##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 의사의 특권

내가 서울대병원 내과 병동에서 인턴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82 병동이라고 기억되는데 내가 담당 환자 중에 간경화로 입원한 환자가 있었다. 간경화가 심해지면 나중에 복수가 차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환자는 그 코스를 그대로 가고 있었다.

결국 간성 혼수가 되어 날마다 고통으로 인해 고향을 지르곤 하였다. 그 소리는 때로는 흐느낌을,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한 맺힌 고독을 표현하는 듯싶었다. 그 소름끼치는 외침이 나에게는 '이제 내가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되었는데 돌아갈 영혼의 고향이 없구나.'라는 울부짖음으로 들렸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영원한 본향'을 상실한 데서 온다. 왜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것처럼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치르셨는지 실감나는 경험이었다.

의사의 제일가는 사명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 있다. 만약 내가 의사로서 고통 받는 환자에게 '영원한 본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의학적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단에는 객관적 진단과 주관적 진단이 있다고 폴 투르니에는 말했다. 내 간이 나쁘다는 것은 객관적 진단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질병의 궁극적 의미를 묻는 것은 주관적 진단이다. 만약 의사가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답변만을 해 주고 궁극적인 문제의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이다. 만약 의사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소경이라면 어떻게 환자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겠는가.

나는 내가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의 목표는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지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사회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고 치유와 회복을 돕는 전인 치유 의사가 되고 싶다.

환자가 된다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다. 한번은 사랑의 봉사단을 다녀온 며칠 후의 일이다. 아내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였는데, 밤에 자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아내가 없는 고독한 침대에서 뒹굴다가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다. 그때 나는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암 환자들을 대할 때에는 더욱 안쓰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런 그들에게 한 가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사람은 아프지 않고는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만약 환자의 고통이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인간은 '죽음으로의 존재' '구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라는 명제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자칭 건강관리의 '대가'이다. 나는 약한 몸이지만 내가 하는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암 환자를 대하고 나면 최악의 컨디션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만큼 인간의 고통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절망 중에 찾아왔던 환자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여넣는 작업이 끝나면, 어두움으로 덮였던 그들의 얼굴이 환해진다. 그렇게 그들을 보내고 나면 나는 온몸의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처럼 맥 빠진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암 환자를 대하면서 느끼는 축복 중의 하나는 '나에게도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것이고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가난한 심령과 종말론적 삶의 재확인이다.

## **제한된 여건에서 창조적인 삶을 살라!**

### **의대생의 추억**

#### **책벌레들의 낭만**

보통 사람들은 '의대생' 하면 '공부만 하는 책벌레쯤으로 생각하고 무미건조한 삶, 또는 삭막한 삶을 연상한다. 그러나 낙제를 염려할 정도의 성적이 아닌 의대생들은 대체로 표정이 밝다. 우선 취업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과 의사가 된다는 꿈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 등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공부 이외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의사라는 직업이 독립적인 개인 직업이고 전문직이라는 것 자체가 개성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력을 주는 요소인데, 그래서 그런지 괴짜도 많다. 서울의대에는 'Medical Orchestra'가 있었는데 서울 음대에는 못 미치지만 국립극장을 빌려 상당한 수준의 공연을 하곤 했다. '연극반'의 수준도 상당했고 '야구부' '농구부'의 경우도 시간만 있으면 연습을 할 정도로 열심이다.

그리고 무의촌 진료를 위한 의료봉사회가 많았다. 의사로서의 위치를 확보했으니 그 무엇을 해도 됨으로 하는 셈이다. 그러니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의대 생활의 진수는 공부가 아니라

특별활동인 셈이다. 나 역시 한국 CCC 에서는 최초로 아가페 의료봉사회를 의대에 등록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이건오 선생님과 창동 진료소**

이건오 선생님은 부산 CCC 출신으로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 밑에서 외과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되신 분이다. 당시 서울에 오셔서 시립병원에 계실 때부터 서울 아가페 모임을 만들어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 모임의 초창기 멤버였다.

이 선생님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현재 선린병원 원장이신데 놀랍도록 겸손하시고 합리적이시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신앙 인격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아가페 모임이 계속 발전하여 창동에 있는 진료소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주말 진료를 시작하셨는데, 나는 본과 2 학년 때부터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선생님과 의대 3 학년 학생들이 환자를 나누어 진료를 했는데 한번은 진료할 상급생이 없으니 나에게 진료를 하라는 것이 아닌가. 본과 2 학년이면 아직 임상실습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급박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진료에 임했다.

그날 처음 환자를 볼 때의 그 두근거리는 가슴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 마음 자세로 환자를 본다면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 이후 당시 슬럼가였던 목동과 상계동에서도 주말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어느 여름 날, 최초로 무의촌 진료를 간 곳은 아야진이였다. 나는 당시 처음으로 강원도 땅을 밟아봤는데 버스가 굽이굽이 대관령을 넘어갈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조대 해수욕장을 지날 때 처음 마주친 동해안의 푸르름에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당시 진료지는 고성군 아야진이라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는데 그때 시작된 작은 진료 보따리는 이제 지구촌 어두운 곳이면 어디라도 가는 큰 보따리로 바뀌어졌다. 자칫 방향 속에, 또는 실험 정신으로 무의미하게 보내버릴 수 있는 대학 생활의 특별 활동이 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라일락 향기와 해부학 실습 시험**

처음 해부학 실습 때의 일이다. 시체 한 구당 6 명의 학생이 실습 조를 편성해 한 학기 동안 해부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았다. 처음 시체를 보았던 날 밤, 한 친구는 자면서 밤새 소리를 지르더라고 같이 하숙하던 친구가 귀땀을 해 주었다. 처음에는 다들 두려워하며 칼을 대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한 학기가 끝나갈 때쯤 되자 서로 창자를 던지며 장난치는 정도까지 발전했다.

연건 캠퍼스에 라일락이 필 무렵, 첫 해부학 실습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각 테이블에 시험 문제가 있고 '따르릉'하고 종이 울릴 때마다 한 테이블씩 이동해 가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었다. 시험 문제는 다 해부되어 있는 장기(간, 창자, 복막 등)나 하나의 신경(근육, 혈관 등)에 조그만 리본을 묶어 놓고 그 명칭을 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충분히 생각을 하고 답을 쓸 시간이 없다 보니 빨리 이동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종이 울리자마자 쓴살같이 다음 테이블로 미끄러져 가는데 그 속도가 전광석화와 같았다.

지금도 라일락이 필 무렵이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난다. 사실 '시체 만지기 싫어, 해부하기 싫어, 의대가기 싫어' 하는 아이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은 외과를 선택하는 여학생도 많아지고 있다.

사람은 닳치면 무슨 일이든 하게 되어 있다. 사소한 취향의 차이로 자신의 장래를 자신 있게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의학의 본질은 사회 과학

대개 의대에 진학하려면 문과보다는 이과 성향의 학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기에 반대한다. 의학은 기초 영역에서는 자연 과학에 가깝지만 임상 영역에서는 사회 과학에 가깝다. 엄밀히 말해 의학은 대인 관계의 학문이다.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으로 보아 의학은 1%의 의학 지식과 1%의 의학 기술, 그리고 98%의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합쳐진 창조적인 예술이다.

물론 의사가 새로운 의학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게을러 오진을 하거나 치료적 판단을 그르치는 것도 죄악이다. 그러나 더 큰 죄악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생물학적 측면으로만 대하고 기계적으로 다루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우수한 두뇌를 가진 영재보다는 풍요로운 인간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꺾지 않는다.

의사는 일생 동안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만남이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력을 미치게 마련이며 어떤 형태로든지 그 열매를 산출한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직업일수록 성숙한 인격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 의대 실습생의 전공의 행세

기초 의학을 배우던 1.2 학년 시절에는 별로 흥미를 못 느끼던 의학 공부가 임상에 들어가면서부터 그토록 신바람 날 수가 없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했다.

그런데 학생 신분으로 임상 실습을 할 때부터 내가 약간 노숙하게 보였는지 전공의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환자들이 '선생님' 하며 궁금한 것을 물어오면 선생인 척 하고 열심히 답변을 했다. 인턴 때도 주치의로 오인 받고는 했는데 그때도 그냥 주치의인양 행동해 버렸다. 조교 시절에는 간호학과 강의나 다른 대학 강의를 나갈 때 '교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쭐한 기분이 들어 좋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도달하고 나니 감격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본분에 충실해야 내면의 기쁨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장 속도와 능력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과속은 항상 위험한 법이다.

본의 아니게 선생님 행세를 한 것이 유익했던 점은 병원 전도를 할 때였다. 마침 임상실습을 할 무렵, 당시 병원장이던 홍창의 장로님의 노력으로 서울대학병원 교회가 설립되었다. 홍창의 선생님은

소아과학의 대부로 뛰어난 저술 활동과 학구적 열정, 그리고 따뜻하고 깨끗한 성품과 명 강의로 모든 교수와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이다.

그분은 내가 예방의학을 전공할 무렵 나의 후견인 역할을 해 주셨고 나의 첫 저서 <아빠를 젊고 건강하게>의 추천사도 써주셨다. 그분 이외에도 의대의 박재형 선생님, 치대의 손동수 선생님이 당시 모델적인 크리스천 의사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교회 설립에도 열심히 관여하셨다.

나는 토요일 오후마다 교회 주보를 들고 내가 맡은 병동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전도를 했다. 물론 가운을 입고 다녔기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고 모든 환자들에게도 환영을 받았다.

한번은 12 층 특실에 있는 한 아주머니를 방문했는데 그녀는 재발된 대장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주보를 돌리며 '크리스천이냐'고 물었더니 '어느 외국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짜고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영리를 꺼내들고 "하나님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시고 아주머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15 분 동안 열렬하게 복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분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느냐고 물으니 '영접 하겠다.'며 침대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닌가.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제까지 우리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그녀의 남편이 '나도 같이 영접 기도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한 부부를 주님께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퇴원 후에도 몇 차례 그분의 집에 가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등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열심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그 부부를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4 년쯤 뒤에 소망 교회에서였다. 정말 우연한 일이었다. 그날은 내가 소망 교회에서 곽선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한 다음 날이었다. 당일 억수같이 내리는 비로 비행기가 연기되어 신혼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서울에서 지내며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분들을 만난 것이다.

아주머니는 놀랄 만큼 건강이 회복되어 있었는데 시기나 상황으로 보아 완치나 진배없는 상태였다. 그분들은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며 고마워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 나왔다'고 기뻐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암에서 완치된 많은 분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알고 영적 건강이 회복되면서 치유의 에너지가 분출되어 육신의 병까지 치료받은 경우'이거나 '예수님을 믿기는 했으나 세상 속에 빠져 방황하다 다시 신앙을 회복한 케이스', 또는 '특별한 사명을 깨닫고 기적적인 치유를 받은 경우'이다. 이 부부는 첫 번째 경우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다.

## **현실 문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 **서연전과 백양로의 밤**

해마다 서연전(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와의 정기적인 체육 대회)이 있었지만 애써 무관심하다 졸업반이 되어서야 참석했었다. 농구, 야구, 배구, 족구, 테니스 등 운동 경기도 경기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응원전이다. 연고전에 비길 수는 없지만 의대생으로서 참으로 행복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스포츠의 고상한 매너와 유기적인 하나 됨과 치열한 승부 근성을 좋아한다. 스포츠라는 말에 농축되어 있는 목표 의식과 훈련의 인내, 그리고 올림픽 때마다 터지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에 감동을 받는다.

나는 젊음의 열정과 패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젊은이만이 누릴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의 열기를 사랑한다. 나는 청년들과 춤추며 찬양하는 일에 끼어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법이다. 젊음의 진수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노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서연전을 마치고 백양로를 걸어 나오는데 동급생 한 명이 내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의예과 때에 과대표를 했던 친구로서 재수와 낙제의 전과가 있는 나를 형이라 불렀다. "형. 나는 재작년 그 학원 자유화의 열기 속에서 용기 있게 행동했던 형을 잊을 수가 없어. 학생 총회 때 어용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데 정말 감탄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유신정권이 무너지고 5공이 생기는 틈바구니의 무정부 상태에서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학원 자유화 운동과 그 혼돈의 시절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리게 되었다. 그때의 내 행동이 불신자였던 그 친구를 것처럼 감동시켰던가 보다.

박 대통령 사망 후 캠퍼스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대자보였다. 대개의 대자보는 운동권 학생들의 것으로 폭력과 혁명을 선동함은 물론 부정확한 정보로 학생들을 오도하는, 출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밤새워 고민하던 끝에 대자보를 작성하여 도서관 앞에 붙였다.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학생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게 아카데미즘을 수호하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성경적 원리에 의해 폭력은 폭력을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을 뿐이며, 만약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거리로 뛰쳐나간다면 또 다른 무서운 폭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대자보 밑에 나의 소속과 이름을 당당히 밝혔다. 이 대자보는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몇몇 어른들과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며 내 손을 꼭 잡기도 하였다. 이후 붙여지는 대자보에 종종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생긴 것도 변화의 한 양상이었다.

며칠 후 열린 학생 총회에서 급진적 학생들은 수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불순 세력의 집권 음모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 당시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반민주화 세력으로 몰려 어용으로 낙인찍히는 판이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러 단상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여러분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문제를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에 충실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사태를 주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와 같은 의견은 의과대학생들이 단체로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을 제지해 주었다. 크리스천은 싫든 좋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 크리스천은 모름지기 모든 현실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성경적 관점을 가진 크리스천이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할 때,

이 사회는 밝아지고 결국 이 노력이 왜곡된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캠프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개인 구원과 사회 정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 인간 이해의 폭을 넓히라!

### 죽음과 삶의 문제

나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다. 특히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환자가 자기 집에서 임종하기를 원하는 경우 환자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퇴원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Hopeless Discharge'라고 부른다. 의사들끼리는 '배달 나간다.'는 은어를 쓰기도 한다.

चे장염으로 임종 직전에 집으로 가기 원하는 30 대 초반의 주부가 있었다. 그녀의 목에 엠브 백을 설치하여 계속 인공호흡을 시키며 광명시에 위치한 그녀의 다세대 주택에 갔던 적이 있다. 그때 그 남편과 자녀들의 비통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죽음의 권세, 그 잔혹함과 비정상성이란….

뇌막염으로 심장은 뛰는데 호흡이 멈춘 10 살 소녀를 보름 동안 인공호흡기로 기계식 호흡을 시키다 소생 가망성이 없어 강원도 영월의집까지 내려다 준 적도 있다. 밤 12 시에 서울대학병원을 출발하여 5 시간 동안 계속 인공호흡을 시키며 마지막 생명의 연장을 시도했는데, 정말 처절한 투쟁이었다.

가는 동안 약간의 호흡이 되살아나 도착해서도 차마 엠브 백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와버렸다. 그녀는 그 후 닷새 동안을 버티다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면서도 필연적인 것이다. 이 권세의 극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5 분 후의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죽음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비극이다.

더욱이 처녀, 주부, 청년, 직장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까지 무차별 앞에 걸리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복음의 긴박성과 불가항력적인 죽음의 권세를 생각해 보면서 사랑의 클리닉에서 만났던 암 환자 중 잊혀지지 않는 한 자매의 '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글을 실어본다.

## 아름다운 죽음은 최고의 축복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 함이니라 ( 빌 1:20~21)

경건한 크리스천과 불신자와의 임종 모습을 비교 연구한 한 의사의 보고서는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신자의 경우는 투병 중에 고통을 느끼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환희의 표정을 짓는 반면, 불신자의 경우는 마치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다고 한다.

우리 집안에서 늦게 예수를 믿었던 큰어머님은 임종시에 너무도 환한 모습으로, 평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편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신자였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왜 이리 죽기가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셨다고 한다.

인간사의 최고의 축제는 출생과 결혼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경우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곧 죽음이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과 만남이며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는 환희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의 죽음은 최대의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4월 어느 날, 우리 병원 입구에 한 아름이나 되는 거대한 철쭉 화분 두 개가 도착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J 집사님의 가족들이 인사차 방문을 했다. 남편 되는 집사님이 그동안 아내의 치료 과정에서 보여 준 정성에 대한 보답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었다. 그 철쭉은 거의 두 달 동안 고인의 미소를 연상하듯 활짝 핀 채 환우들을 맞았다.

내가 30대 초반의 J 집사님을 처음 본 것은 지난 해 늦가을이었다. 그녀는 1년 전 자궁에 출혈이 있어 치료차 종합병원에 갔다고 했다. 놀랍게도 병명은 말기 자궁암이었고, 너무 늦어 아무것도 치료할 수 없으니 집에 가서 안정이나 취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들었다. 그래서 집에서 식이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다 사랑의 클리닉을 찾아온 것이다.

집사님은 처음 몇 달 동안 호전의 기미를 보일 때나 나중에 다리 통증으로 고통을 받을 때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를 그치지 않았다. 그 극한 상황에서도 불평 한번 하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죽을 때 가장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그녀는 정말 아름답게 주님 곁으로 갔다.

비록 암 환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긴 했지만 자신의 모든 장기를 기증했으며 장례를 치르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가족들은 고인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에 사용될 비용 모두를 필리핀의 한 선교지에 보내어 그녀의 이름으로 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남편은 앞으로의 모든 이익금을 고인의 이름으로 선교지를 돕는 데 쓰기로 했다고 결심을 토로하였다.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사실은 신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크리스천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답지 않다는 데 있다. 오히려 더 생명에 집착하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모든 치료의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 수단에 의지하려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그들은 수백 가지의 치료법을 찾아 헤매는데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된다. 안수 기도, 금식 기도 등도 마찬가지이다.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적 의미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만을 믿는 종교적 행위로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전제된 것이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굶주림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크리스천의 죽음은 최고의 은혜를 받는 찬스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더욱 중요하다. 죽을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아름답게 죽는 것, 그 자체도 최고의 간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숙한 크리스천의 죽음은 최고의 축복일 뿐 아니라 신앙 고백의 확실한 찬스가 되는 셈이다. 크리스천의 최고의 비전은 주님을 만나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가. 이 비전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천국이 있는 사람처럼 죽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겠는가. 막상 죽음 앞에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가.

### 전인 치유의 중요성

한번은 온누리 교회의 집사님의 소개로 명문여대 출신의 30 대 초반의 여인이 위궤양 증세로 종합 검진을 받으러 왔다. 그분은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신 분으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귀뜸을 해 주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속이 쓰린 지가 얼마나 됐느냐'고 했더니 '최근에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 부드러운 어조로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도 되느냐'고 하면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현재 자신은 이혼 직전에 있으며 2 년째 별거 중에 있다고 했다. 별거 사유는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의 무능이었고 '친구들의 남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었다. 남편의 인간성은 나쁘지 않고 아내도 사랑하지만, 아내의 핍박에 못 이겨 집을 나가 현재는 별거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겼는데 그는 독신으로 사는 이혼남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남편은 그녀를 원하지만 할 수 없이 이혼에 동의했고 이번 토요일까지 그녀가 도장을 찍어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된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원하는 대로 되고 보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과연 남편과 헤어지고 그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이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평소에도 약한 그녀의 위가 온전할 리 없었다. 그래서 위궤양이 생긴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나는 그녀에게 결혼의 의미, 사랑의 본질, 대인 관계의 치유에 대해 성경적인 시각에서 1 시간 동안 설명해 준 후, "기도해 주고 싶은데 같이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권면했다.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녀가 다시 내 진료실을 찾아왔다. 전과는 달리 표정이 밝았다. 차분하게 자신의 몇 가지 변화를 설명했다.

우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은 기도란 대개 '자신의 복을 비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자신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 화해하고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이 다시 생겼다고 했다. 이제는 오히려 남편의 무능을 자신이 보충해 주고 싶은 열망이 싹텄다고 했다. 반면에 유능해 보이던 남자 친구를 만나니 그토록 멋있게 보이던 매력이 갑자기 싫어지고 구토가 날 정도라고 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감격 하더라는 것이다.

결국 그녀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 영적 건강과 가정의 건강까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나를 찾았던 한 권사님 역시 내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그분은 교회의 권사님으로 서울 약대를 나온 엘리트였고 매우 활동적인 분이였다. 더구나 그녀의 남편은 그 교회의 수석 장로였고 두 분은 금실

졸기로 소문난 부부였다. 그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문제를 생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황 박사님. 박사님은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남편에게 맞고 삽니다."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그분의 심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고 함께 손을 붙잡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그분을 대하면서 나는 인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인간의 죄 성과 이기심이 얼마나 깊이 모든 관계 속에 침투해서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를 실감했다. 그리고 위장된 현실과 내면의 고통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감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며, 때론 나쁜 것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나는 집회의 강사로 초청되어 강연을 하게 되면 '드러남의 은혜'에 대해 강조하게 되었다. 드러나면 치유가 가능하지만 감추어져 있으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자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의학을 포함한 전인격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진화론에 입각한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이며 병든 인간을 치료하는 최우선적인 길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경우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치료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서적 건강, 지적 건강, 신체적 건강, 관계적 건강으로 그 회복의 영역을 확대해 가면 되는 것이다.